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/ 2023. 1.11.(수)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담당자: 이요한 / 전화: 880-2985 / 이메일: yohan410@snu.ac.kr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현장 견학

- 개발도상국 출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,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방문

- 바이애슬론, 크로스컨트리 스키, 봅슬레이 및 스킨레톤, 스키 및 보드 등 동계 스포츠 체험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재학생 21명(개도국 학생 19명)은 2023년 1월 11(수)~13일(금)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현장을 견학한다.
- 스포츠 견학은 교과과정 중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,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.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유산개발(Sport event hosting and legacy development)과 스포츠 시설경영(Sport facility management)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체험해 봄으로써 수업내용과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뿐만 아니라 DTM 출신 한국 학생 중 동계스포츠 선수 출신 8기 김준현(前스켈레톤 국가대표), 9기 조수지(前2018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아이스하키 선수) 학생이 직접 관련 시설을 설명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선배와의 만남도 진행될 계획이다.
-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개발도상국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 및 참여에 대한

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DTM 개도국 출신 학생들도 동계올림픽 시설 및 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.

- 금번 견학은 2018 평창 기념재단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/패럴림픽 기념관을 방문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, 2박 3일의 기간 동안 DTM 학생들은 바이애슬론, 크로스컨트리 스키,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, 스키 및 보드 등 동계스포츠 체험을 통해 동계스포츠 종목, 시설,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.
-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이번 견학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과 시설을 경험하는 것에 더해 2024년에 개최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관련한 시설을 방문하고 준비과정을 목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에게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며 “개도국 출신 스포츠 행정가들은 한국의 스포츠 개발 경험에 관심이 있는 만큼 금번 견학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주요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”고 언급했다.
-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 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20여 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